

인종차별 문제 파헤친 '白人の 양심'

을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딘 고디머의 삶과 문학

올해 노벨문학상은 남아프리카 문학전통을 이어온 대표적 작가 나딘 고디머(Nadine Gordimer, 68)에게 돌아갔다. 고디머의 이번 수상은 25년만에 7번째 여성수상작가로, 남아프리카 대륙에서는 86년도의 월레 소잉카 이후 두 번째 수상작가로 기록된다.

고디머는 192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광산촌 스프링스에서 태어나 요하네스버그의 위트워터스랜드대학에서 공부했다. 한때 발레리나를 꿈꿨던 만큼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단련된 몸매와 미모를 잃지 않는 고디머는 11세 때 몸이 약해 휴학하면서부터 문학작품에 몰입, 특히 미국빈민문제를 파헤친 엠티 싱클레어의 「정글」을 접하면서 남아공의 사회문제에 눈뜨기 시작했다. 26세에 결혼과 함께 첫 출간한 단편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1949)와 장편 「거짓의 날들」(1953)은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고」 「근세기 작가들의 첫소설치고 그 작품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후부터 「프라이데이의 추적 및 그밖의 단편들」(65) 「리빙스턴의 동료들」(71) 「한 병사의 포옹」(80) 등의 단편집과 장편소설 「지방인들의 세계」(58) 「사랑을 할 경우」(63) 「명예로운 손님들」(90) 등 최근까지 수준높은 작품을 꾸준히 발표, W.H.스미스 문학상·토머스 프링글상·제임스 테이트 흑인기념상·뷰커상 등 영어권의 유명문학상을 휩쓸었고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벨문학상 최종 후보자로 계속 물망에 올랐다.

아파르트헤이트에 의해 남아공의 다른 작가들이 망명을 해야 했던 시절에도 고디머는 계



새로 출간된 「정글」 홍보를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는 나딘 고디머. 현재 재혼한 카시러와의 사이에 남매를 두고 있다.

속 남아 자신의 정치사회적 신념과 작가로서의 신조를 지켜왔다. 벨스 만델라 등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지도자들의 정치신념에 동조하는 고디머는 88년 ANC회원들이 국가반역죄로 법정에 섰을 때는 백인으로서 당당히 변호에 나설 만큼 실천을 통해서도 허위의식을 거부하는 용기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40여년의 작품활동으로 10편의 장편소설과 2백여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한 고디머의 작품세계는 남아공의 현실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사회가 곧 정치적 상황」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고디머는 정치적 외부상황이 미치는 영향 아래 개인의 삶이 서로 다른 인종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에 일관된 관심을 쏟는다. 고디머의 소설배경의 대부분이 남아공의 모든 갈등과 모순이 축약된 요하네

스버그로 이뤄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곳엔 빈곤과 풍요가 공존하고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살며, 세련된 유럽문화와 아프리카 토속문화가 부딪친다. 여기서 고디머는 다수의 흑인 속에 소수의 고립된 존재로서의 백인을 발견한다. 일정정도 이성과 여린 감수성을 지닌 고디머 소설의 백인 주인공들은 대체로 사회계급이나 피부색을 넘어서선 인간관계를 추구하나 어쩔 수 없는 벽을 안고 좌절한다. 고디머 초기소설들은 모두 이상을 따라가려는 섬세한 인간들이 어떻게 사회적 금기에 의해 부서져 나가는가가 간결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포착된다.

우리나라엔 80년대 초반부터 「세계의 문학」 「외국문학」 등 계간지를 빌어 소개돼왔던 고디머의 작품 가운데 단행본 번역서로는 「가버린 부르조아 세계」(1960)와 「보호주의자」(1974)가 있다. 두권 모두 본질적으로 선량한 인간들이 인종차별 사회에서 겪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묘사한 고디머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가버린 세계」(이상화, 창작과 비평사)는 표제작 외에 「떠오르는 아프리카」 「방문객」 등 8편의 단편도 함께 실려 있다. 여기서 고디머는 백인 중산층의 고립된 현실에 시각을 쏘여가며 흑인뿐 아니라 백인도 인종차별체제의 희생물임을 부각시킨다. 주인공 리즈 반 덴 산트는 남아공의 사회에서 백인진보주의자들의 끝없이 계속되는 반아파르트헤이트는 결국 비참한 개인의 파멸을 이룰 뿐이라는 사실을 백인이상주의자였던 전남편의 예에서 느낀다. 그녀는 또다시 흑인민족주의운동에 동참하라는

권유를 받고 존재론적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보호주의자」(崔曠, 지학사) 또한 대기업 가인 백인의 뿌리없는 정신적 삶을 흑인노동자들의 삶과 대비시켜 그려나간다. 고디머는 이 작품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역사와 전통 속으로 이입해 들어온 백인문명이 얼마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를 물으면서 주인공 백인 농장주의 정신적 붕괴과정을 통해 「아프리카 토양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질적인 유럽문화의 피상적 영향」을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고디머 작품세계에 대한 평가는 그가 똑같은 소재 속에서도 상투에 젖지 않는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더욱 높아진다. 명료한 인식으로 세부심리를 정확히 짚어내, 한편으로 버지니아 울프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고디머는 내면에 집착하지 않고 외부와 내면의 끊임없는 교섭관계를 직시하고 있다는 데 더욱 열린 감수성을 보여준다.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고디머의 말은 이러한 사실을 밑받침한다.

「작가는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작품 속에서 인물을 창조할 뿐이다. 제임스 조이스는 남성작가임에도 「율리시스」에서 물리 블룸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 여인의 가장 내밀한 독백을 토해내지 않았는가」

문학이란 「작가의 관찰에 의해 각 인물들이 겪는 위기상황이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디머. 그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항구불변한 영향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다.

— 김지원 기자

大豊企劃은 편집 대행 전문 회사입니다.

대풍기획
편집 대행

(출판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성실히 대행해 드립니다.)

표지·본문·광고 디자인·카타로그·사보·촉보
도안·전산·청타·논문·각종 인쇄를 제작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68
유일빌딩 4층 503호 ☎ 277-9284

최고의 출판제작 전문업체

책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책을 만듭니다

마루별이 책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수한 조직 구성원과 새로운 첨단 DTP설비를 도입·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루별의 독창적이고 신선한 디자인 결과는 좋은 책을 만드는데 최고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표지디자인·본문편집·출판광고·매뉴얼 제작

마루별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 : 701-2391(대표) Fax : 701-2395 · 맥킨토시 작성된 화일과 신문 출력서비스도 가능